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며

새벽사슴(일본)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0년이상 살면서 익숙해지고 집이 된 오키나와에서 어느날부터인가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2-3시에 주님이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 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주님은 회개로 인도하셨습니다. ‘건강은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보다 제 생각에 선한 것을 붙들고 있던 것이 교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은 안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뒷전으로 미루어 왔던 대학사역시절부터 주신 신학공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면 신학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구촌 선교부와 선교단체에 공부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교회에서 공부하는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않는데 그럼에도 공부할 것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모두 제가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교를 알아보는 중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이 선교를 위해 세워진 학교이며 장기간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들을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허입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원하였고 허입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주님이 주신 기회이며 선물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쉽지않게 결정한 만큼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의 욥기의 말씀은 공부하러 입국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저의 모든 길을 아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며 단련되는 과정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떠남에 있어서도 욥기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로 저를 부르셔서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제가 있어야할 곳으로 보내시고 만나야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다시금 길 떠날 준비을 합니다.

기도로 그 땅에 저와 함께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닿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일들을 함께 보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신실한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현지인들과 저와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줄 분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제가 그 땅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